

생산자, 소비자



안전사용기준 지켜
생산한 농산물에
'품질보증제' 시행
소비자 신뢰높이고
생산자 판매촉진도모

박 대 균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1. 안전농산물 생산의 당위성

작물생산과 농약의 역할

최근 유기농법에 의하여 생산된 『무공해 농산물』이라고 판매를 하는가하면 채소잎이나 과실에 벌레 먹은 흔적이나 병반이 있는것이 농약을 안뿌린 증거로 『무공해 식품』이라고 이것을 찾는 소비자도

왕왕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해충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독소를 분비하고, 병이 만들어 내는 독물은 농작물 자체에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도 없고 또 맛과 품질도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대농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질

작물별 병해충에 의한 감수율 (단위 %)

수 도	콩	감 자	고 구 마	사 과	오 이 (노지)	무
35	28	25	23	90	85	35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인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약적인 영농기술을 적용하면 필연적으로 병해충과 잡초는 발생이 늘어나 피해를 증대시킬 것이고 모든 작물의 품종도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농약을 안뿌렸을 때의 병해충에 의한 감수율(減收率)을 보면 사과와 오이에서 수량감소가 85~94%로 가장 심하다.

식품소비 형태의 변화

일반국민의 식품소비 성향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과거 식품의 절대생산량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먹었으나 소득이 점차 높아지고 생활양식도 변화됨에 따라 『영양』을 위주로한 식품물 섭취로 변화였고, 차차 『맛』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보고 즐기면서 식품을 소비하

는 『예술』적 차원으로까지 외식문화가 형성되어가는 방향으로 식품 소비가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다.

안전농산물의 중요성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병해충과 잡초를 막기위한 수단으로 농약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이 우리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매일 음식을 먹고 생활을 영위해 가는 사람의 몸은 적은 량의 해로운 물질이 몸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해하거나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너무 많은 량의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몸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매일 먹는 음식물 즉,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는 보다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제도적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2. 우수농산물 생산의 과제

안전사용기준 지키기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약을 직접 사용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농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만 생산성을 높이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을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농약병이나 포장지 또는 설명서에 표기하여 이를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농약별로 적용되는 작물의 병해충과 수확전에 마지막

으로 뿌릴 수 있는 날짜, 최대한으로 뿌려도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을 지켜서 사용하면 농산물중의 농약잔류문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생산

일반소비국민이 식품을 구입할 때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은 쌀의 경우는 밥맛이 좋은 양질미를 고르게 되고, 채소나 과일에서는 신선도(新鮮度)와 숙도(熟度) 등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있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에 소비자가 량(量)과 가격 위주로 식품을 구입하던 때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농업도 이제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企業)이 되어야 하겠다. 즉, 농민 한사람 한사람이 최고급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장인(匠人)정신을 갖고 소비자를

소비자의 식품구입시 착안사항

순 위	채 소	과 실	냉동식품
1	선도와 품질(77.9)	선도와 품질(59.3)	품질등(원재료)(70.1)
2	품질등숙도(48.4)	품질등숙도(52.9)	가 격(41.1)
3	가 격(31.7)	맛 (31.1)	맛 (27.9)
4	표 시(17.7)	가 격(27.7)	표 시(17.9)
5	크기, 용량(8.6)	산지, 명성(11.0)	선 도(16.3)

생각하는 농사, 새롭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어놓는 농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특산물을 생산에서, 수확, 포장, 판매까지 일관체계화 하여 상품화율을 높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약안전문제도 주산지역별로 생산농민이 일치 단합하여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서 자기지역(주산지역)의 명예를 걸고 지역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방향

정밀예찰기능 강화로
신속 정확한 정보발표

“농약은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최초의 수단도 아니고 최선의 수단도 아니며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란 점을 감안해서 농약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면 예방위주의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전국 군단위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기본예찰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밀예찰기능을 강화하여 방제적기를 지역별로 결정하게 된다.

기본예찰소에서 직접 운영되는 벼예찰표 152개소와 금년에 확대하여 설치되는 소득작물 예찰포 40개소에서 얻은 병해충 예찰 조사 자료를 분석, 전산화하고 벼 보리등 식량작물과 마늘 양파 참깨 과수등 소득작물 관찰포를 주요 들과 주산지역에 설치하여 병해충 발생추세를 판단, 지역별 방제적기를 판단케 한다. 또한 시군 농촌지도소장 책임하에 예찰반을 편성하여 순회예찰 또는 투망식예찰을 실시하고 각종조사자료와 기상전망을 기초로하여 농촌진흥청과 도농촌진흥원에서는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4~9월중) 예찰회의를 개최하여 농민이 적기방제를 할 수 있도록 병해충발생정보를 발표한다.

식량·소득작물 관찰포 설치

계	식량작물		채 소				과 수		특 작
	벼	보리	마늘	양파	고추	배추	사과	배	참깨
1,271개소	957	134	22	13	40	25	30	15	35

소득작물 예찰포 설치지역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양 주 이 천 안 성 화 성	원 주 영 월 홍 천 삼 척	청 원 중 원 제 천 괴 산 영 동	서 산 논 산 천 안 공 주 예 산	정 읍 남 원 고 창 김 제 무 주	나 주 고 홍 무 안 영 암 강 진	예 천 영 천 의 성 영 덕 금 통 봉 화	창 념 함 안 진 양 하 동 거 창	북 제 주 주

기본방제 활성화와
문제병해충 중점방제

예찰을 통하여 얻어진 방제적기를 신속하게 농민에게 통보하여 예방위주의 적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군농촌지도소에서는 예찰정보와 자체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방제협의회를 거쳐 기본방제통보서를 작성하여 행정, 농협 및 농조등 유관기관과 농민(이장, 방제단장)에게 송부하고 부락앰프방송과 지역방송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문제되었던 병해충은 조기예측,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경주코자 한다.

어린모 기계이앙 확대에 따른 바이러스병, 도열병, 벼물바구미 등의 적기방제 실천과 벼멸구의 발생예측 모형도 활용에 의한 경

제적 방제추진, 또한 지난해에 기상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세균성벼알마름병, 사과의 흑성병, 딸기의 잿빛곰팡이병 등도 조기예찰과 적기 중점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병해충 발생상습지와 취약지에 대하여는 저항성품종 재배와 약효가 긴 농약을 적극 권장, 방제횟수를 줄여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다.

농약안전사용

92. 1. 1부터 적용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의 확대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자인 농민은 자율실천에 의한 안전생산이 정착되어야 하겠고, 소비자는 농약잔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소비가 촉진 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되어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농민이 기필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안심하고 먹을

'91 농약안전사용교육계획

구 분	대 상	계 획	시 기
계		1,780천명	
◦ 겨울 농민 교육	농 민	1,164천명	1~2월
◦ 농약안전 특별교육	농민, 공직자	206천명	2~3월
◦ 농약상 교육	시판농약상	3천명	4월
◦ 농협직원교육	판매요원	1.6천명	2~5월
◦ 지도공무원 교육	겨울교관교육	4.0천명	12월
◦ 기 타	농민 등	402천명	년중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

교육기회 확대 농약안전사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 제반 홍보수단에 의해 확실히 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된다.

우리 청에서는 단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일선지도기관에 출당당 지도사와 농약담당지도사 180명을 2주간씩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단계별로 농민교육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본 교육에서는 행정기관이 주축이 되어 농협 및 농약공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재는 물론 슬라이드, 비디오 등을 활용, 실효를 거두도록 할 것이다.

현장지도 강화 전국적으로 1~2월에 1,16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되는 겨울농민교육에서 책과 시청각자료등을 통해 배운 농민의 지식이 포장에서 어떻게 실천, 활용되고 있을까?

일선 지도사들은 논·밭두렁과 비닐하우스를 순회하면서 농민들이 작물별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고 또 농약살포시 보호장비는 착용하는지 등 하나 하나 점검하며 현장에서 지도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 병해충 예찰결과에 따라 적기 방제하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생산된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시범사업도 전개하고 이렇게 생산된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일선 지도기관장이나 담당지도사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생산자는 안



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주산단지별로 딸기 오이 토마토 고추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농약안전사용 수칙판을 제작하여 걸어두고 농민이 보면서 실천토록 하고, 토마토 오이 딸기 사과등 6작물에 대한 농약사용실태를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활용할 예정이다.

홍보 및 교육자재 지원 농민·소비자·농약판매상에게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약공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각급단위 교육에 활용할 교재, 슬라이드, 비디오등 제작지원은 물론 포스타 표어 리후렛등

쉽게 보고 실천할수 있는 유인물을 발간, 배부토록 하겠으며 신문·잡지는 물론 TV를 통한 광고 활동과 라디오, 마을앰프, 차량가두방송등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국민 홍보계도에 노력하겠다.

모두를 위한 길

농사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여 보다 많은 수량을 낚은 물론 좋은 품질의 것을 만들고 동시에 힘든 농작업의 일부노력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생활수준은 더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져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좋은 농산물만을 찾게 될것ियो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생산농민은 농약사용에 대한 득(得)과 실(失)을 따져서 농약 안전사용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면서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남보다 먼저 팔리는 농산물, 남보다 높은 값에 팔리는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을 것이다.